

주 일 예 배

2019년 11월 17일

인도: 이규본목사

* 찬양 SONG OF PRAISE		다함께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34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박휘영전도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삼상 7:5-14(1Samuel)	인도자
찬양 CHOIR		찬양대
말씀 SERMON	“하나님의 도우심” “ Thanks God's Help ”	이규본목사
헌금 OFFERING		다함께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찬송 HYMN	410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규본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1월 헌금송:** 11/17: 에스더선교회 11/24: 글로벌선교회
-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ERTS)가 개강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11/24(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돌리시기 바랍니다.
 - 초청할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은 11/28(목)입니다.
 - 각 쉼과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 1년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

(11. 17. 2019)

본문: 삼상 7:5-14

제목: 하나님의 도우심

“사우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에셀이라 하니라” (삼상 7:12)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주전 1200-1020)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큰 환난 중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올해도 일 년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를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할까요?

1.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었는데 사우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3절) 회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었습니다(4절).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의 위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2.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도우심

사우엘은 단발성의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활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모두가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울을 길어 붓고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 왔지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내려 큰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5-11절).

3.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고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물리쳤고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도로 찾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우엘의 사는 날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Judge)로서 예언자 시대의 장을 연 인물이다. 사무엘이 30세까지 엘리 제사장을 보좌하며 성소인 실로(Siloh)에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도왔다. 이제 30세가 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기 시작한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통당한 일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자주 쳐 들어와 백성들은 항상 불안하고 공포에 싸여 있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때라 각 지파들이 평시에는 각기 독립적으로 행정하며 예배드리고 지나다가 어떤 외적이 쳐들어오면 12지파가 한 곳에 모여 공동대처를 해 나갔다. 또 예배를 같이 드리는 절기에도 함께 모여 집회를 가졌다. 이를 '지파 연맹제'(Amphictyony)라고 부른다.

이제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아뢰게 돌라오려면 이방신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오직 아훼만 섬기라”(상상 7:3-4)고 외친 후 5절에서는 온 지파를 미스바에 집합시킨다. 두 가지 목적으로 소집했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위해서며 다른 한 가지는 블레셋 군대를 공동대처 하기 위한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 왔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자기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블레셋 군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한다.

사무엘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큰 우레를 발하여 혼란시키니 블레셋이 지중해를 건너온 후 처음으로 대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도망가는 적을 뒤쫓아 다 멸한 후 사무엘은 돌을 하나 들어서 미스바와 셸 지방의 가운데에 세우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상상 7:12)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즉 히브리 말로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았고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감사절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하며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을, 나의 교회를, 나의 조국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11172019)

2019년 기도제목

1. 말씀충만, 믿음충만, 성령충만, 지혜충만, 은혜충만, 권능충만 (행 6)
2. 내 집을 채우라 - 전도 (눅 14)
3.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엡 4)
4.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왕상 6, 학 1)
5. 주일학교, EM, Cell의 교육과 부흥을 위하여 (딤후 4)
6. GCTS와 ERTS의 발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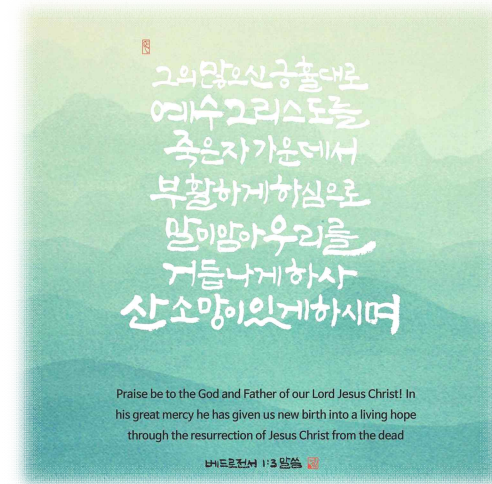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 목사 : 이규본
- *행정전도사 : 현종영
- *교육전도사 : 최화숙, 전행복(EM)
- *전도사 : 박휘영, 한우연
- *장로 : 안석원 *권사 : 이재숙
- *안수집사 :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 *지휘 : 김명애 *반주 : 서난숙
- *찬양대 : 김남규, 박휘영, 현종영, 이재숙, 이 윤, 장수자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월-토 5:5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셀 모임	모이는 장소

미주안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산 소망으로 살라(벧전 1:3)
“Live with the Living Hope”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